

목포권

신안 암태면 해역 8월 정전사고 피해액 92억원 최종 집계

郡, 한전에 배상 요청키로

지난 8월 20일 신안군 암태면 해역에서 발생한 정전 사고로 새우, 전어 등이 폐사해 92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신안군은 목포대 갯벌연구소에 의뢰한 피해조사 용역 결과 어업경비인 종묘대, 사료비, 전기료 등 손해액이 70억원이며 기대수익 22억원 등 모두 92억원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신안군-동신대 사업추진 협약 체결

신안군과 나주동신대학교가 최근 신안군에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정책개발,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협정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신안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활력사업 등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혁신사업,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생복마을 조성 등), 미래전략산업 추진에

해역이 준 것은 전어, 새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이라면서 "이 평가 금액을 토대로 한전에 피해 배상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피해배상과 관련, 신안군 송전사고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재웅)는 지난달 29일 피해어업인 85명이 상경, 한전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신안군은 또 피해어업인의 사업재개를 위해 내년 예산에 단전피해 어업인 지원사업비 4억4천만원(도비 50%, 군비 50%)을 확보키로 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신안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공동개발과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에 나주동신대학교가 기획 및 자원·컨설팅을 맡게 돼 한층 내실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해 됐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신안 '동백하' 김장철 맞아 큰 인기

전국 각지서 주문 쇄도



김장철을 맞아 생새우인 신안 '동백하'(冬白蝦)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신안 임자도를 중심으로 영광 안마도 해역에서 잡히는 동백하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로 팔려 나가고 있다.

신안수협 관계자는 "제철을 맞아 하루 평균 5천 상자씩 서울 등지로 팔려 나가고 있어 연말까지 30억원 가량의 생새우 판매실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생새우는 5kg 1상자에 최고 5만 원부터 최저 2만 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백련지 4계절 관광지 개발을

백련축제 규모·행사일정·비용 줄여야

무안 주민 1,709명 설문

무안군 주민들은 지역 대표축제인 백련축제의 성과는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개최일정과 비용을 줄이는 대신 백련지를 4계절 관광지로 집중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무안군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주민과 공무원 1천 7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설문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33.8%가 '백련축제를 현행대로 4-5일간 개최하자는' 의견을 보인 반면

축제 기간을 줄이거나 격년제 또는 주말에만 개최하고 절약되는 예산과 인력을 채류형 관광지로 백련지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66.2%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또 백련축제 기간을 전후해 공무원들의 행사장 투입으로 인한 행정공백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응답자 대다수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백련축제가 지역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 등 홍보효과가 컸다고 인정했다.

무안군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무안백련축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군은 또 자체적으로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고 군민 토론회를 이달중에 여는 등 단계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백련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라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속적인 투자로 축제기간외에도 관광객들이 백련지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백련축제는 지난 2001년과 2002년 문화관광부 지정 지역육성축제와 우수축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712만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지난 8월 백련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인기있는 연꽃을 감상하고 있다.

무안군 김장 한포기 더 담그기 운동

무·배추농가 돕기...지역 단체와 함께 직판행사도

무안군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와 배추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농협, 여성단체 등과 공동으로 김장 한 포기 더 담그기와 직판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무안군은 최근 김치 가공업체와 출항

인사 등 김치 대량 소비처 60여 곳에 무안군수와 농협조합장 명의의 공동 서한문을 보내 '내 고향 김장채소 사주기 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군은 지난달 말 서울 도봉구청 광장에서 황도량유통공사와 함께 김장철 직거

래장터를 개설해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군내에서 생산되는 김장재료 전 시판매 행사를 열어 600여만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주부클럽무안군연합회(회장 이정원)에서도 4일부터 8일까지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있다. 이 단체는 회원들과 외국인 여성주부들이 직접 배추를 구입한 뒤 김치를 담가 혼자 사는 노인과 무료급식소, 소년소녀가장재단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지역 단신/

목포보호관찰소 준법운전 교육



목포보호관찰소는 최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심기주 교수를 강사로 초청, 오토바이나 자동차 무면허운전 등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준법운전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통사고 사례를 통해 안전과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불법운전은 물론 오토바이 절도등 교통관련 범죄를 예방하는데 초점을 뒀다.

특히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교통사범 청소년 20여명을 선별해 교육을 실시했다. 목포=이성희기자 lsh@

목포 문화산업지원센터 문 열어

목포문화산업지원센터가 6일 문을 연다. 목포문화산업지원센터는 2005년 4월 석현동 일대 3천556㎡ 부지에 57억원의 예산을 투입, 지난 3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다.

목포시는 센터내에 문화산업기업입주실(17실)과 영상·음향편집실 등 문화산업 기업 입주에 필요한 기본공사를 완료하고, 7월에는 7억여원을 투입해 68종의 공용장비 구축을 마쳤다. 현재 이곳에는 문화관련 17개 업체가 입주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보이고 있다.

목포시는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서남해안권의 문화산업 산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문화클러스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Table with 3 columns: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전북. It lists various statistics such as population, area, and other regional data.

Large advertisement for '태양상사' (Taeyangsasa) featuring '칼레오' (Caleo) products. It includes images of the products, promotional text about energy efficiency and safety,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branch in Gwangju.

A grid of real estate advertisements from various agencies. Each ad includes details about property listings, such as location, size, price, and features. Agencies mentioned include '대인동산', '정우부동산', '리치부동산', '빛고래', '대인부동산', '국민공인중개사', and '하이링크 컨설팅'.